



기행

# 백두령장의 력사의 자욱은 어디서나 보인다

## 선군혁명경도의 뜻이 오른 뜻길은 고장들을 찾아서

우리 장군님의 은정이 어린 취재용승용차는 기운차게 달렸다. 차창밖으로는 선군복속에 젊어지는 조국의 풍요한 대지와 수려한 산발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맑은 강줄기들이 지나갔다. 얼마나 복된 삶을 꽃피워주는 사랑하는 우리 조국인가. 하지만 우리가 취재길을 떠난것은 변형하는 조국의 모습을 렌즈에 담고 글에 옮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우리 취재자는 역사속을 달리고있었다. 이 땅을 휘감은 수십년혁사의 년륜을 헤치며 백두령장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선군혁명경도의 뜻을 올리신 뜻길은 나날을 찾아가고있는 것이다.

선군,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경도의 길에서 태어난 이 말과 더불어 조국의 50여년사는 얼마나 장엄하게 굽이쳐던가. 첫걸음마 떼어준 친군인 어머니도, 그녀는 현명환 스승도 배워주셨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숭엄하며 가장 따뜻한 부름인 선군!

우리 장군님 뜨거운 심장의 피를 다 바쳐 이 땅에 쓰신 선군의 영웅사시사를 삼가 노래하고자 기행길을 떠난 우리들이다. 고속도로를 지나온 취재차가 눈발의 넓지 않은 길을 따라 강을 건너고 굽이굽이 산자드라락을 에둘렀을 때 쌓은리가 우리앞에 다가왔다.

쌓은리, 오늘의 선군절을 떠올린 력사의 고장은 53년전 잊지 못할 그날을 안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주 제 105명크사단에 령도의 자욱을 새기신것은 선군혁명위업의 계승과 선군경도의 새 출발을 선언한 력사적 사변이었습니다.》

구름우에 솟은 두개의 봉우리가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력사의 이 고장을 지켜선 무적의 두 장수인듯 서남쪽에 서있는 봉우리는 편운산, 동북쪽에 서있는 봉우리는 도운산이라고 우리와 동행한 쌍용혁명사적지 강사 황송희동무가 말해주었다.

편운산봉우리에 걸려 출어졌던 구름이 도운산에서 모아지던 가을에 띤 대지를 적셔주며 단비가 내린다고 하여 쌓은리로 불리우었다고 한다.

오랜 세월 하늘이 복을 주기만을 기원하던 이 땅에 백두령장동지께서 찾아오시어 선군혁명경도의 위대한 경표를 아래까지 세웠으니 주제 49 (1960)년 8월 25일, 그날은 정유년 우리 혁명무력건설사와 조국청사에 중요한 리적표를 새긴 력사의 날이었다.

봉이유에 태동하던 안도의 언덕에서 장엄한 선군회정을 올리시던 전설적영웅 김대장의 뚝이신 그 모습으로 선군혁명경도의 거룩한 첫 자욱을 옮기시어 인민군인들의 심장속에 들어서신 청년장군 김정일동지!

혁명위업의 승리는 총대에 의하여 결정되며 인민군대를 강화하였것을 선군혁명의 첫째가는 총대사라고 보시었다. 력사에 길이 전할 사변적인 첫 자욱을 바로 인민군대의 군위마크사단에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누리를 밝히는 태양의 모습, 선군혁명의 띤 앞날까지도 내다보는 예지로 빛나는 영토로운 안방, 약진의 서늘에 불발한 활판하진 걸음새...

어머이수령님을 모시고 선군경도의 큰걸음을 하신정도를 장군님을 우리르른 사단장병들의 열광의 환호가 병용처럼 뿜어간 산발들을 쟁쟁 울리며 매아리쳤다.

그이께서 어머이수령님과 함께 명예위병대의 사열을 받으시는데는 장병들의 환결같은 소망이었으나 자신께서는 장군이 아니신듯, 수령님의 사열을 보좌하시는것만으로도 족하신듯 한없이 겸손하신 인품으로 사단장사무실로, 교양실과 군인회관을 모 선군경도의 자욱을 이어가시었다.

군인들의 심장마다에는 그이에 대한 애호와 호모가 더욱 끓어넘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인민군대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더 높이 들고나갈데 대한 내용으로 력사적인 담화를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군위마크부대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전투임무와 그 수행방도에 대하여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비범한 군사적안목으로 현대전에서 마르크의 리용에 대하여 알기 쉽게 가르쳐주시었다.

그이의 말씀을 듣는 부대장병들의 눈빛은 부대의 배력과 마르크에 대하여 어쩌면 그리도 환히 아실기 하는 의문으로부터 점차 경탄으로 바뀌었다. 질문어린 군인들의 눈길에 수령님들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혁명경도의 거룩한 첫 자욱을 새기신 마르크사단은 그이께서 어르신절부터 잘 아시는 부대였다. 어머이수령님께서는 해방적 후 낙하고 기속자도 모르던 청년들로 새조신의 첫 마르크편대를 조직하시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수심어차내다 찾وسی어 훈련과 학습, 생활을 보살펴주시었다. 그나날 부모님과 함께 이 부대를 수심어차내다 찾وسی었던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주제 37 (1948)년 11월 마르크병들의 첫 시운전훈련을 보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부모님앞에서 마르크를 타보기까지 하시었다.

력사적인 담화에서 서울해방전투를 비롯

한 전투들에서 큰 역할을 하여 수령님께 충직한 근위부대의 영예를 지닌 사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시었다. 105명크부대는 전통있는 부대로서 붉은기총대운동을 힘있게 전개할데 대한 수령님의 현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모든 면에서 앞장서야 합니다. 문제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시는데로만 하면 됩니다. 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언제나 깊이 연구하고 잘 집행해야 하였습니다. ... 혁명군대는 총을 잡고 적과 싸우는 무장집단이기 전에 총대로 조국의 운명인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되어야 한다는 혁명무력건설의 근본 원칙이 제시되고 수령님의 현저교시관철, 사상사업을 앞세워 인민군대를 수령옹위의 제일열사대로 키우기 위한 동창집안 권건설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력사의 순간이였다.

정전 우리 장군님의 선군혁명경도의 첫시기는 인민군대를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경도로 투쟁지어진다. 군경도의 첫시기에 벌여 인민군대의 강화발전예 불멸의 업적을 쌓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적을 경건히 더듬으며 우리는 다음사적대로 걸음을 옮기었다. 유정하게 흐르는 실개울을 따라 올라가나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제 49 (1960)년 8월 25일 현저지도하리신 살림집》이라고 쓴 집앞에 평화집한 너럭바위가 나졌다.

이 바위가 잊지 못할 그날 우리 장군님께서 야전식사를 하신 곳이라고 하면서 강사 엄현순동무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살림집에서 식사를 하되 하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께서 식사를 드시는데를 보시고서야 우리도 빨리 식사를 하고 하시었다.

식사는 부대식당에 준비하였다고 일꾼들이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우리는 수령님이 항상 곁에서 호위해드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너럭바위에서 식사를 하고 이리 하시었다.

동행한 일꾼이 우리가 가져온것은 제기반인데 어떻게 바위에 퍼놓고 식사하시겠는가고 주저할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없다고, 야외에서는 제기반이 더 어울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일꾼들에게 한덩이씩 취우주시고나서 자신께서도 달게 드시었다.

단란한 가정적분위가 흐르는 가운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는 머지않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대학에 입학하면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과학의 요새도 점령하고 군사리론에도 정통해서 우리 나라를 그 어떤 적들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군사의 강국으로 만들 결심이라는 굳은 선군의지를 피력하시었다.

우리 장군님의 조국번영을 위한 강령군길에서 혁명일화로 태어나 친만군대를 울렸던 제기반의 력사는 바로 이렇게 여기 쌓은리의 너럭바위에서 선군혁명경도의 첫날부터 시작되었다. ... 엄현순동무는 이 너럭바위와 관련한 인사를 깊은 후일담도 말해주었다.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적부문에서는 그날 우리 장군님의 식사장소를 놓고 었갈린 경정이 있었다. 어느덧 50여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있을법도 한 일이었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을 동행하였던 한 일꾼이 그이께서 식사하신 곳이 부대식당이라 아니라 너럭바위였다고 주장하였다. 하여 부대는 사적바위를 찾는데 떨쳐나갔다. 건것부는 가을바람에도 향발달들이 후두둑후두둑 떨어지 인종이 그칠새 없었고 덧였는 세월에조차 지대가 높아져 흙과 돌에 쌓이고 묻히여 영영 자취를 감춘듯싶은 너럭바위였다. 하지만 인민군대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많은 량의 토랑과 돌들을 채내였을 때 일꾼이 회상한다 그대로의 너럭바위가 나졌다. 바위는 절세위인의 사적을 길이 전하려는듯 옛 모습을 고이 간직하고 있었다.

정전 세월의 류수도 선군경장의 자리는 땅각의 이끼로 덮지 못하는 법이며 그 자욱은 우리 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을 생생처럼 간직하고있는 친만군민의 총지한 마음에서 비롯된 영원이 빛을 뿌리는 것이다. 서천하늘이 붉게 물들 무렵 우리는 쌓은리를 떠났다.

선군혁명위업의 계승과 선군경도의 새 출발을 선언한 력사적사변이 새겨진 고장을 떠나시는 우리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밀물처럼 차오르는 채 차안의 룽음기에서 노래 《김일씨 설레인다》의 선율이 은은하게 흘러나왔다.

백설을 휘날리며 설레이는 백두밀림은 품만한 사적속에 대한향목을 울려 백두산의 아들이시며 위대한 선군경장이신 김정일동지에 대한 뜻깊은 사연을 실어보내는데 것이었다.

이 땅의 산천정기가 모이고 조상대대의 간절한 기원이 서려있으며 강성병영의 미래도 다 보이는 조종의 성산에 펼쳐졌이 백두밀림일진대 우리 수령님의 선군위업의 바통을 이어받으시고 력사의 큰 뜻을 올리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하여 어찌 실레어 노래하지 않랴.

백두산총대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장군형제동지의 기질과 총대의식을 확립하신 우리 장군님께

와 위대성에 끝없이 매혹되었기때문이었다. 백두산기슭의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볼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오른쪽에서 걸음을 옮기고있던 최현동지가 급히 그이의 왼쪽으로 돌아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그림자 때문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림자를 밟아서는 안된다는 제나름의 철칙을 그 언제나 지켜가 투사동지였다. 그것은 최현동지가 어머이수령님을 모실 때의 김경숙동지에 대하여서도 노래하고있었다. 평양학원 제 1기 졸업식에 참석하신다. 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언제나 순결한 마음으로 받들어모시고 따랐는가를 보여주시는 크지 않은 하루의 일화이다.

우리의 취재길은 일당백의 고향 대덕산으로 이어졌다.

굽이굽이 서른세굽이, 하지만 취재자는 급한 고개길을 쉰생 울렸다. 도로가 정갈하다는 우리의 발에 동행한 부대일꾼인 김경훈동무는 의미심장한 어조로 우리 부대군인들은 이 도로를 《평양으로 통하는 포장길》이라고 부른다고 말하였다.

전후사연을 듣고보니 정말 그러하였다. 옛 세월 대덕산은 유명한 숲산지로 알려져있었다. 서울사람들은 대덕산숲만 찾았다고 한다. 척박한 땅때문에 알찬 소출을 기대할수 없었던 이 고장 사람들에게 큰 덕을 가져다준것이 이 산의 숲이어서 그 이름을 대덕산이라 불렀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명한 숲때문에 숲이아닌 숲의 한소리는 그 얼마나 높았고 숲을 지나르는 고역에 등이 흰 사람들은 그 얼마나 더러워지는가. 주는 덕보다 원성이 더 높았던 대덕산이었다.

그러한 대덕산에 위대한 선군경장동지께서 찾아오시어 우리의 총대는 일당백으로 역세게 버리어졌고 조국과 인민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 선군의 큰 덕을 일게 되었다.

일당백의 고향, 선군의 명산으로 자랑높은 대덕산의 초병들에게 있어서 이 길과 통하는 평양, 그것은 곧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부대일꾼은 이 길이 훌륭한 사연에도 동무들은 전선경계군만 잘 살펴, 이 도로로가는 자신께서 말아해주시겠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이 깃들어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찾으신 주제 52 (1963)년 2월 6일의 대덕산길은 험했다. 간밤에 쏟아진 눈이 산릉선과 골짜기마다에 무릎을 치도록 쌓여있었다.

길 아닌 생눈길을 헤치시며 대덕산에 오르신 선군경장들의 그날의 발자취를 더듬어 우리는 중대병실과 교양실, 식당에 이어 적들이 지척인 야외감시소에도 올랐다. 삼각산과 립진강, 콩크리트장벽이 한눈에 바라보였다.

일당백구호바위앞에서 우리의 감정은 더더욱 승화되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당백의 군사사상을 제시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옛날부터 싸움 잘하는 장수를 일당백이라고 하였었는데 이것은 하나가 백을 당한다는 말이라고 하시면서 군인들이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전투훈련과 방어공사를 잘하면 일당백이 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까리보래의 위기를 물아오고 전세계와 특허는 조선반도를 겨냥한 미제의 침략전쟁행동에 당중앙위원회 제 4기 제 5차전원회의의 경제국방방진로선과 대덕산의 일당백사상으로 대답하시는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유명한 《일당백》구호는 이렇게 제시되었다. 하지만 군사지휘관들이 이 구호의 진수

를 처음부터 다 리해한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일당백강군속성구호를 방어전에 한정된 구호로 생각하고있었다것을 한 지휘관의 발언에서 판단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의도는 방어에서만 일당백이 되리라는 것이 아니다. 옛날부터 싸움 잘하는 장수들은 앉아서 싸운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적진에 돌입하여 적병들의 목을 베었다고 하시며 이렇게 깨우쳐주시었다.

인민군대원들을 일당백으로 키울데 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는 군인들이 방어전투와 공격전투에서 하나가 백을 담당할수 있는 필멸 나는 싸움군이 되라는 높은 요구가 담겨져있었다. ... 이렇듯 《일당백》구호의 본질을 천명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당백을 신비롭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기 무기에 정통하며 진지를 철벽으로 다지고 그에 의하여 적을 죽이는 전법에 숙련된다면 일당백은 문제없다고 하시면서 그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주시었다.

선군경장의 가르치심을 새겨들으면서 대덕산의 군인들은 조국의 하늘가에 물러들 짐은구름이 갈라져 깃겨 사라지는것을 느끼고 떨적의 무죄주목, 일당백의 장수됨으로 조국방선을 지켜갈 철석의 맹세를 다졌다.

참으로 단순히 추억으로만 새겨안고 력사를 돌이켜보는것으로만 물어물수 없는 반세기전 2월 6일이였다.

성의있게 우리를 안내해주던 부대일꾼은 대덕산의 해발고가 236m이라고 하면서 이 수자를 거꾸로 음미해보라고 말하였다. 63년 2월! 위대한 선군경장동지께서 오셨던 그해, 그렇다였다.

신비스러운 일치는 그뿐이 아니었다. 일당백구호바위로 온 나라에 알려진 바위는 누가 옮겨왔거나 가공한것도 아닌 천연바위그대로이다. 하늘의 계시를 받아 지실함이 부러워 받고 비석처럼 우뚝 서있는 곳에는 그바위에 세월의 풍운도 지울수 없는 《일당백》의 새글자가 새겨진데는 사연같은 이야기가 있었다.

위대한 선군경장동지께서 다녀가신 다음 이바위에서 이바위에 일당백이라는 글자를 새겨냈다. 대덕산에 새겨진 선군경장들의 업적을 길이 전해가려는 총대군인들의 심정이 그대로 담긴 글밭이었다.

그런데 선군경장동지께서 제시하신 일당백 사상을 달가와하지 않는자들이 있었다. 대덕산에 나타난 이자들은 하나가 백을 당한다는것은 맞지 않는다. 큰 나라들이면 더하면 지원도 주지 않거니와 솟는다고 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며 그 일당백을 당장 지우라고 췌었다.

하지만 선군경장들의 가르치심을 직접 들은 대덕산군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당백은 백두령장들께서 우리 총대에 오시어 인민군대에 주신 구호이다, 우리가 이 글밭을 지울수 있는가! 중대당조직에서는 긴급히 회의를 열었다.

일당백은 총대는 우리 군인들의 투쟁목표이고 신념이며 량심이라는 당회의의 결정대로 김영택동무를 비롯한 군관당원들과 김봉순, 백당수, 박창수동무들을 비롯한 병사들은 깊은 밤에도 회를 들고 함파와 정대로 그 글밭을 더 깊숙이 새겨가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우리 군인들의 심장속에 새겨진 신념의 글밭을 지키기 위한 결사전이었다.

그런 결사전이 어찌 력사의 그 나날에만 있었겠는가. 위대한 선군경장동지께서 제시하신 일당백 구호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 그것은 당과 수령의 사상과 평도를 음으로 양으로 거부

하는 한중도 못되는 찌꺼기들을 력사에서 제거하는 심각한 계급투쟁이기도 하였다. 인민군대원들의 심장마다에 용암처럼 끓고 확고한 실천으로 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목숨으로 사수하자!》의 신념의 구호는 일당백사상으로 총대가 앞장에서 자기 수행, 자기 평도자를 결사옹위하는 우리 혁명의 지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굳건하게 하였다.

대덕산군인들처럼 자기 수행, 자기 평도자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당의 사상을 결사옹위하는 신념의 인간, 투쟁의 인간들이 있었기에 우리 혁명은 올라타려는 위새기들을 무자비하게 때려잡으며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의 통일단결을 억적으로 다져가는 불멸의 전통을 빛내일수 있었다.

비석바위에 신념의 글밭이 새겨진 후엔 제부러리지 그 바위에 뿌리를 두고 이름모를 한그루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였다. 이상한것은 그 나무가 한겨울에도 푸르름이 변함없는것이었고 이 일대에 한그루뿐이라는 것이었다. 애써 노력하던 그들은 평양의 식물원에 가서야 나무이름이 동청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한겨울에도 푸르러 그 이름 동청이라는 이 나무는 오늘날도 일당백구호바위와 더불어 참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있다.

동청, 그것이 어찌 나무의 이름만이라고 하였는가. 일당백의 고향 대덕산에는 동청 나무처럼 변함없는 한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덕산혁명사적지에서 강의도 하고 판사역도 하고있는 김성호동무는 일당백고향중대의 군관시절에 이어 제대후에도 이곳에 뿌리내려 대덕산을 지킨 옛 소대장 김영택동무의 아들이었다.

일당백의 고향, 선군의 명산 대덕산을 떠나 우리의 생과는 60년대. 우리 조국의 60년대, 그것은 위대한 백두령장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혁명경도를 시작하신 영광의 년대, 희망의 년대, 복 많은 년대였다.

지난세기의 60년대에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의 큰 뜻을 올리시지 않았더라면 어찌 그 이름도 빛나는 위대한 선군시대가 열릴수 있었으며 선군으로 존엄되고 선군으로 변형하며 선군으로 행복한 우리 조국과 인민의 오늘을 생각할수 있랴.

무성한 가지와 잎새들에 졸졸 영양양을 주는 가족의 뿌리인듯 선군조국의 오늘과 래일에 끝없이 역세인 힘과 열정을 주고 정의와 진리를 주며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펼쳐주는 우리 장군님의 60년대! 어찌 백두산과 쌓은리, 대덕산뿐이라 하였는가.

선군혁명경도를 시작하신 60년대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으신 혁명의 사갈봉, 서해비행훈련까지 하신 한 공군부대... 우리는 그 모든 곳들로 기행길을 끝없이 이어가고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선군경장의 력사의 발자취가 새겨진 방진원리의 초소들과 하늘길, 바다길의 그 모든 지점들을 다 찾자면 한해가 3, 650일이 된다 하여도 아니한 생을 기울인다 하여도 모자랄것이다. 하나 무수한 그 지점들을 찾아가지 않은들 어떠하랴.

이 땅 그 어디에나 백두령장의 선군경도 업적이 빛나고있는데야. 기행길을 마치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속경정이 터져나왔다. 위대한 선군경장의 력사의 자욱은 어디서나 보인다!

글 분사기자 박 일 민  
분사기자 김 금 분  
사진 분사기자 한 광 명





# 크나큰 믿음속에 최첨단돌파의 기상 힘있게 과시

이 땅에서 과학기술영역이 세차게 몰아치고있다. 가슴벅찬 뜻깊은 사변들로 이어져 온 한해에 보내며 과학자, 기술자들을 비롯한 나라 인민들은 누구나 이렇게 말하고있다. 올해의 날과 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긍지와 존엄이 최상의 경지에 오른 뜻깊은 날이었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과학기술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과학기술발전에 큰 힘을 넣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첫 과학기술실용위성의 성과적발사로 온 나라에 더없는 크나큰 기쁨과 환희의 파도가 울려 퍼져나갔었다. 주제적인 실용위성을 제작발사하여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떨친 그 기쁨과 전진,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어 올해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전제 인민이 새해의 충진근로를 펼쳐나갔다. 우주를 정복하여 우주과학자를 처럼! 끝없는 격정과 환희가 2월에는 나라의 국력을 과시하는 장쾌한 파장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이 펼쳐 휘날리는 당중앙위원회창설 40주년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뜻깊은 기념사업에 힘입어, 마시평스키장과 대우모수산기지로 전변되고 있는 세로동만, 현대적으로 신진된 청천강의 경기관들을 비롯하여, 대의원대 구상에서부터 새로 일떠서고 개건되는 수많은 창조물들마다에 우리 과학

자, 기술자들의 사색과 탐구, 헌신의 자욱이 무수히 새겨졌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중요과학기술적문제들이 적극 해결되어 나갔다. 농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정보당 생산성이 종전의 다수 확보종보다 훨씬 높은 여러가지 농작물품종들을 내놓았으며 빛합성강화제, 식물성장촉진제와 같은 농업용나노기술제품들을 개발도입하여 비료와 농약을 훨씬 절약하면서도 정보당 수확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알맞은 양의 종자알을 생산화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가치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도 데드라인전과 운송신개발, 10여종의 합성가죽의 규격화 실현, 유연창대직기 창대머리의 국산화 실현, 자외선방외과가 큰 여러종의 기능성화장품 개발, 비가공식품들과 빵진조조모, 비탄산수생산공정의 확립 등 질 좋은 인민소비품과 가공식품들을 연구개발 및 도입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신을 이룩하였다. 과학기술영역은 인민경제의 쌍기둥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에서 두 세차게 일어난 것이다. 무연탄생산공정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여지고 합금철생산에 필요한 복합계량제의 생산기술이 확립되었으며 최첨단돌파의 정미기의 수명을 훨씬 늘여 철강생산에 정상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현장 과학연구원사회의 창조적열조가 강화되는 속에 순환화학합기업소에서는 새로운 주철생산기술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고 비날론생산에 필요한 촉매화합성탄을 국산화함으로써 국에

많은 이익을 주었다. 기계공업부문에서 여러 가지 성능높은 기계설비를 개발하고 제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대상과제들이 계획대로 추진된 것을 비롯하여 단련지구와 전자공업부문에서도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나라의 기본과학기술력을 이루고있는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최첨단돌파전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왔다. 이 과정에 경기용기제작에 필요한 재료와 장치기술을 우리 스스로 개발하여 국산화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올해에 진행된 전소 60톤 경축행사를 성과적으로 추진하는 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제때에 원만히 해결하였다. 여러종의 생물소재와 이류폴리비넨올합체의 연구 및 생산도 입, 석탄탄사의 정화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탄성고-전기종합CT합성기의 개발, 김책제련할기설비의 국산화, 김책제련할기설비의 CNC화실현을 위한 투쟁에서도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리파대학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에서도 세계적수준에 맞게 과학기술도입양성과 함께 기초과학연구와 첨단과학기술개발에서 큰 몫을 맡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최첨단돌파전이 힘있게 벌어져 원자힘력기계를 개발하고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고있는 사회과학문제들에 대한 연구에서 가치있는 결과들을 내놓았고 비날론생산에 필요한 촉매화합성탄을 국산화함으로써 국에

# 수령결사옹위우로 부르는 선전화들이 나왔다



【영양 12월 19일합 조선중앙통신】 온 나라 전민군인을 수령결사옹위우로 부르는 선전화들이 새로 창작되었다. 붉은 기록속에 찬연히 빛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불같은 결의

에 총만민 인민군인군과 지식인, 로동자, 농민이 형성된 선전화 **《위대한 김정은동지 우리는 끝까지 당신께 충실하겠습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중심, 영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오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선전화 **《우리의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는 세대가 바뀌고 할바꿈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백두의 혈통을 이어 내려오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오직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전민군인의 역설 기상을 보여주고있다. 생산에서 양양을 일으키는 것으로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위대한 당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로동계급의 맹개 선전화 **《이런 역풍이 불어도 강철로 우리 당을 받들러!》**에 어려웠다. 새로 나온 선전화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천만이 굳게 뭉친 입심단결의 위력을 힘차게 떨치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파격히 전진해나가기로 정단, 전군, 전민을 고무추동할것이다.

덕성관광 공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력을 발휘하도록

에 의하여 마땅히 고귀한 결실

## 래양의 성지를 더욱 빛내이려는 불라는 충정

평양시 양어관리국 일군들과 종업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12월의 날과 날이 흐를수록 어머니장군님에 대한 더욱더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평양시 양어관리국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배두산절제위인들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높이 빛내이기 위한 송고한 사업에 뜨거운 충정을 바치고있다.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이들은 지난 기간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 운하에 정성껏 키운 금어를 비롯한 수많은 희귀한 물고기들을 넣어주었다. 판리국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금수산태양궁전에 태양의

## 녀교원의 마음속에 새겨진 참된 의료일군들

우리는 얼마 전 선천군 석화고급중학교 교

원 김복선동무가 보내온 편지를 통하여 인간사랑의 대의원이 꽃피고 있는 내 조국에서 풀잎이 되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새 주인공들을 알게 되었다.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의사, 간호원을 비롯한 모든 의료일군들이 혁명적동지애와 인간애 대한 지극한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환자료에 최대의 정성을 쏟아붓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몇년전 어느날 보건성제3예방원 원장 리정찬동무앞으로 한들의 편지가 날아왔다. 편지에는 얼마전(로동신문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이 사랑받는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의 가사를 창작한 구희철동무가 이 병원에서 소생되었다

##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국제기구대표부 녀성들 화환 진정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6돐에 즈음하여 19일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그녀의 동상에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국제기구대표부 녀성들이 화환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조선혁명과 녀성운동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었으며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는 배두산전선군에 대한 다함없는 경도의 정을 담아 그들의 동상에 화환을 진정하고 목상하였다. 화환의 땀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하리라!》**라는 글발이 쓰여져있었다.

## 해외연교자가족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을화동지의 가족일행, 중국항일혁명렬사장을화동지 주부종의 딸 주위가족일행, 세제영가족, 재중항일혁명렬사장 김순옥가족, 해외연교자 손원태가족이 만경대 방문하였다. 우리 인민과 친보적인류의 마음의 고향으로 빛을 뿌리고있는

##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 제4차회의 진행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 제4차회의가 현지에서 있었다. 회의에서는 개성공업지구가 재개된 이후 정상화해나가기에 제기되는 실무적문제들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쌍방은 앞으로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국제기구대표부 녀성들 옥류아동병원 참관

평안남도에서 열린 여러 나라 대사관, 국제기구대표부 녀성들이 19일 옥류아동병원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의 송고한 후대만, 미래만을 위하여 최선익의로실비들을 갖춘 어린이들의 종합의료봉사기지가 일떠선 데 대한 해를 들으면서 병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꾸바공화국 특

## 제18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였던 조선 청년 학생 대표단 귀국

에파르르에서 진행된 제18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였던 김일성사주의청년동맹중앙위원회위원장 권운남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청년학생대표단이 19일 귀국하였다. 비형장에서 김일성사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성룡, 관계부서 일군들이 마중하였다.

## 월남군대절애 즈음한 연회

월남군대절애 즈음하여 월남군주조 월남사회의공화국 임시대리대사와 최 두이 룡 대사관주관이 19일 대동강의 대외문화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인민군 장령,

## 의료일군들의 모습, 천혈육의 정을 초월하는 그 사랑과 진정

이것이 바로 의료일군들의 모습, 천혈육의 정을 초월하는 그 사랑과 진정이다. 그 사랑과 진정이 환자를 소생시켰던 것이다. 한두달도 아니고 1년이라는 오랜 기간 깨끗한 양심과 불타는 열정, 아낌없는 정성을 바쳐온 보건성제3예방원 의료일군들의 모습이다.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퇴원하는 그에게 여러 가지 옷과 신발을 비롯하여 생필품들을 챙겨주고, 이수요양사업에 필요한 기구들을 마련해주며, 아픈 몸으로 일하러 갈 때, 훌륭한 교원혁명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병원문을 나서며 김복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마음 사주의보건성제의 혜택속에 다시 태어난 날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조 향 III

## 평성려객빠스감독 및 주차장 관리소 로동자 윤은순동무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해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바쳐가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성려객빠스감독 및 주차장 관리소 로동자 윤은순동무도 있다.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참된 삶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하여 헌성을 바치는데 있습니다.》** 두해전 우리 당의 위대한 구상에 따라 청천강계단식발전건설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였다. 윤은순동무의 마음은 발전건설장소로 달려갔다. 깊은 생각 끝에 그는 발전건설장소로 판원할것을 결심하였다. 그의 결심을 남편과 일가친척들이 적극 지지하였다. 관리소의 일군인 김삼상동무는 그와 마주앉아 이렇게 말했다. **《결심을 잘했소. 동무야 꽃나이를 넘어서셨을 판원에서 바치는 이름난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세요. 당의 뜻을 받드는 길에 동무의 결의를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얼마후 그는 판리소종업원들의 비례율속에 청천강계단식발전건설장으로 떠나갔다. 청천강계단식발전건설소 언제 기초공사가 시작될지는 그야말로 처절한 격전장이었다. 윤은순동무에게는 모든 일이 생소하였지만 함마달도 남자를 못지 않게 하고 등짐으로 버럭도 지나르며 아낙에게 일해나갔다. 공사속도가 처지게 되면 불을 주저거리고 말은 먹고 일을 끝내기 위해 밤잠을 못하고 일하였다. 그러한 윤은순동무에게 대대적지지도단을 비롯한 지

## 철신으로 이어가는 참된 삶

윤은순동무의 가슴은 뜨거웠다. 그는 청천강계단식발전건설을 완공하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결의를 다지었다. 윤은순동무의 가슴은 뜨겁게 되는데, 청천강계단식발전건설을 완공하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결의를 다지었다. 윤은순동무는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품고 있는 열의와 열정을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생의 자욱을 아름답게 새겨가고 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 민족사에 영원불멸할 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

은 거머가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주년을 맞이하였다.

겨레의 가슴마다에 이면위원을 한평생 싸우명으로 삼고서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숭고한 헌신으로 혁명투쟁의 전로정을 수놓아오신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애로운

## 인류사상사에 특기할 공헌을 하신 위대한 정치가

영생불멸의 주제사상의 기치 높이 인류사상사, 혁명과 건설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걸출한 사상리론가, 세계의 정치원로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경모열기는 남조선언론들 마다에 뜨겁게 넘치고있다.

인테넷신문 《정세동향》, 인테넷신문 《민중의 소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치철학은 주제사상이라고 하면서 그분께서 김정일주석님의 혁명사상을 주제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고 주제사상을 혁명과 건설에 구현하시어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라고 격찬하였다.

인테넷홈페이지 《동북아의 문》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과 북의 태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리론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어 특기할 공헌을 하신 것에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사상리론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정치는 김정일주석님의 정치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어버이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눈물겨운 로고를 사무치게 안겨오는 듯 잇을 12월이다.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지난 2년간은 어버이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위대한 한평생을 깊이 진화해 평양하늘가를 우러라 장군님정각으로 가슴 불태워온 경모의 나날이었다.

1970년대에 이미 김정일주석님을 중심으로 하는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시었다. 이어 쓰련과 동유럽사회주의 나라들이 련이 끊어지던 1990년대의 억울한 정세속에서도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는 《인민대중의 우익 사상주의는 필승불패이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등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사회주의를 끝까지 수호할데 대해 선언하시고 수령주의의 자태 미국과의 전면대결전에 나서시었다.

김정일주석님께서 서거하신 후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를 제시하시어 이복사회를

## 선군정치로 이룩하신 민족사적공적은 영원하리

위대한 선군정치로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위들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공화국을 일심단결된 불멸의 정치사상강국으로,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면전기진 경에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

주석님의 사상과 리론으로 묶어 세우시었다. 인터넷신문 《자주민보》를 비롯한 언론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인류사상사에 기여하신 점》, 《주제사상을 체계화하고 집대성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 등의 제목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사상리론적성을 전하는 글들이 수없이 실렸다.

그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김정일주석님의 혁명사상을 김정일주의로 정립하시었다. 그분께서는 주제사상에 기초하여 선군사상을 새롭게 정립하시었다. 선군정치는 새롭고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뛰어난 의지와 통찰력으로 주자시대를 이끌어갈 주제사상을 심화발전시켜 인류가 나아가갈 새로운 길로 밝혀주시는 사상의 대가이시다고 열렬히 칭송하였다.

오늘도 인터넷에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들이 하루에만도 수백건이나 실리고있는것은 경에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위대한 사상과 리론, 혁명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해가려는 남녘의 민심이 절승이 흐를수록 더욱더 강렬해지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다만 인터넷 신문에서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거전 현저지도모습을 담은 영화문헌들을 보면 참기 어려운 감정에 휩싸인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한생은 초인간적인 헌신으로

계속 실고있다. 인터넷신문 《자주민보》를 비롯한 언론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미국을 무를로 해했다. 미국은 봉쇄와 군사적압박으로 북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국방위원장께서는 핵억력으로 미국이 험기를 들고 회담장에 나오게 하였

다.》, 《선군정치를 선택하신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결단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것》이라고 격찬하였다. 그러면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혁명정신과 업적은 력사와 함께 영원할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인터넷신문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지도에 대해 이 세상 그 어느 지도자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광복행보》, 《북쪽현저지도》였다고 찬탄하고있다.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도대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김정일국방위원장처럼 현저지도의 길을 달린단 야전필참지 서 생을 마감한 지도자가 또 있을까. 《유신초강국》이라는 명제를 내걸고 지구는 물론 우주 공간까지 타고갔다 마지막은 세상을 호령하듯 군림했던 오펀한 미국을 끝없는 굴욕과 패배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를 다시 만날수 없었겠지 않다.

다만 인터넷 신문에서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거전 현저지도모습을 담은 영화문헌들을 보면 참기 어려운 감정에 휩싸인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하였다. 한생은 초인간적인 헌신으로

살아있을 모습에 담겨있기때문이다. 북녘동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것처럼 민중을 그토록 사랑하신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민족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자신의 마지막호흡까지 어떻게 바치다가 생을 마감하셨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다.

생애의 마지막까지 한평생이라도 더 많은 민중을 만나시고 한곳의 초소, 한곳의 공장과 농장이라도 더 찾으셨다는, 마지막죽음을 각오한 사람처럼 나타나 불수 있는 단호한 의지를 지니고 현저지도 하시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모습은 보며 비통해하지 않을수 없다. 력사를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김정일국방위원장같이 한생을 살고 현저지도한 야전필참지 서 생애를 마감한 지도자는 그 어느 시대에도 없을것이다.

어버이장군님의 서거 1주년을 즈음하여 언론들은 남조선 각계에서 발표된 추모사와 연설들에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무적강국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이복을 없애는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 민족사적공적을 이룩하시었다.》, 《이복은 인공의 구워심 《광명성-3》 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로 장군님께서 최대의 영예를 드려있다. 이복의 위력은 인민중, 온 세계를 끝없이 격동시키고있다.》, 《그한 때에 대해 특별히 부각시켜 보도하였다.

《서프라이즈》를 비롯한 인터넷신문들과 《다음》, 《세이머》 등 인터넷싸이트들은

《심장의 고동소리 영원하리라.》, 《민중의 태양이신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고귀한 빛은 민족의 심장에 남아 영원히 함께 있을것입니다.》, 《천년만년 인류력사에 칭송될 김정일장군님, 그이름을 실어 민족의 어버이의 거룩한 혁명업적을 널리 전하였다.

##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앞길을 열어주시 민족의 태양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 숭고한 민족애로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마련하시어 조국통일운동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전진하는 력사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는 기관지 《민중의 진로》에 쓴 글에서 김정일주석님께서 평화하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운동을 받들어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는 조국통일운동을 민족자주위업행위를 위한 최대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현명하게 이끄시어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다고 지적하였다.

인터넷신문 《동북아의 문》은 《김정일국방위원장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표제를 달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조선의 김대중 등을 만나주시는 사전문헌들을 모시고 그들이 절세의 위인계 매혹되어 토로한 회고담 가운데서 일부를 소개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2000년 남북수뇌상봉을 마치고 돌아온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여러 기회에 김정일국방위원장에 대한 소개를 했다. 그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매우 자상한분이다.》라고 말하였다. 박지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무척 호랑신분이다. 완전한 자신감을 가지고계셨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열정과 민족중재에 대해 깊은 관심을 지니고계셨다.》고 회려했다.

2005년 6월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만나하신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도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소탈하시며 시인시원하게 협의하고 이끌어내시는분》 이시라고 찬탄하였다.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진보련대, 《보안법》피해자모임을 비롯한 단체들은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은 불신과 갈등의 장벽을 넘어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려는 진전적목표를 이루고, 조국통일의 확고한 리정표를 안겨주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력사적공적은 민족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단체들은 겨레가 당하는 불멸의 아픔을 가겨주시는것을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온갖 시련을 다 바치시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겨레와 민족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김정일장군님, 그이름을 실어 민족의 어버이의 거룩한 혁명업적을 널리 전하였다.

인터넷신문 《통일뉴스》는 《강철레드우에 다시 울릴 새벽의 풍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위대한 혁명가이시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사회주의완성과 조국통일을 위해 난관과 역경을 헤치시고 강고분투하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자신의 안녕보다 혁명승리의 미래를 사랑하였던 혁명가이시었다.

그이께서 비록 서거하시였으나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어 그 인민행렬자의 새벽풍음은 다시 울릴것이다.

사회주의완성과 조국통일의 리정을 바라보며 쿨기 높고 달려 오를 줄기 강철레드우에...

남조선의 경제분석가들과 언론들은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정일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사상과 령도에 기초한 정치철학을 펴실것이며 6.15공동선언, 10. 4선언에 걸맞은 통일리론을 한치의 드림없이 견지하시기를 기원하고 한결같이 주장하였다.

민중이 낳은 또 한분의 걸출한 위인이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시며 태양조선, 태양민족의 앞날은 휘황찬란할것이라는 신념의 제침은 남녘땅에 차림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남조선에서 퍼피페당의 반인민적약정을 반대하는 철도 로동자들의 총파업이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지난 9일 서울과 부산, 대전 등 5개 지역에서 동시에 파업투쟁에 참가한 철도로동자들은 14일 서울역광장에서 2만여명이 참가한 규원결의집회를 열고 《총력투쟁으로 철도민영화 저지하자!》, 《정부가 끝까지 대결하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철도를 민영화하여 외국독점자본과 패권자본의 배를 불리워주려는 박근혜페당의 반인민적정책에 항거하였었다.

남조선의 민주로동들은 일제히 연대파업에 돌입하였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1280여개 시민조직단체들이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범국민집회와 초불집회를 연이어서 개최하고있으며 서울대현역을 비롯한 수십개 대학의 대학생들과 수십만명의 일반시민들 지어 고등학교학생들까지 로동자들의 투쟁에 합류해나서고있다.

퍼피보수집권페당의 불법선거와 극악한 《유신》독재의 부활책동, 기간적인 선거공약으로 각

계층속에서 환멸과 분노의 웨침이 높아지고있고 때를 같이하여 벌어지고있는 철도로동자들의 대 규모파업으로 박근혜페당의 통치기반은 밀뿌리채 후퇴하고있다.

비바람은 퍼피페당은 철도로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철도로동 190여명명을 벌에 고소하고 제포명장을 발부논대 하여 무려 8500여명의 로동자들을 집단해고한것을 비롯하여 퍼피법무부, 경찰청, 안전행정부 등 파쇼폭압기구를 총동원하여 이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그러나 철도로동들과 각계층은 퍼피대통령선거 1년이 되는 19일 대 규모로 《정부》 시위투쟁을 벌이며 철도민영화철폐, 로조탄압중단 등 요구조건이 판철될 때까지 회생을 각오하고 무기한 파업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결의하면서 완강히 맞서싸우고 있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초보적인 생존의 요구와 민주주의적권리들을 쟁취 위해 펼쳐나선 남조선로동자들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

며 반인민적약정과 파쇼독재로 군로대중을 무장히 짓밟고 남조선을 인간성장으로 전면전기진 퍼피페당의 반인민적, 반민주적 폭거를 전제 로동계급의 이름으로 준엄히 단죄구한다.

남조선철도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자신들을 매관자본의 외국독점자본의 노예로, 군로대중의 생존문제를 약한 출혈정들의 반인민적인 자본경쟁의 희생물로 내몰아가려는 퍼피당국에 대한 치솟는 분노의 폭발로서 생존전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응당한 투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피페당이 로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파업참가자들을 대대적인 해고농성을 벌려다 못해 전력을 총발동하여 로동자들의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는것은 그들이야말로 무자비한 반인민적파당, 인두쟁이는 약만들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퍼피페당의 파쇼적폭거는 수십년간 패망죄역과 《산업화》를 떠들면서 로동자들이 조합을 못가지 파업에 나서는것을 가혹하게 탄압하던 악명높은 《유신》 독재를 그대로 반복해

하고있다. 《유신》 파쇼독재를 되살리려는 퍼피페당의 반민주적, 반인민적약정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분노는 하늘에 닿았다.

지난 1년을 통하여 남조선의 군로대중은 정의와 진리를 지키고 자기의 존엄과 생존권을 되찾으며 민주화될 새세상을 안아오기 위해서 오직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것을 깨우쳐 절감하였다. 이것이 오늘 남조선에서 《정권》 퇴진투쟁은 막을수 없는 민심의 흐름으로, 대세로 되고있다.

《유신》 독재가 수직스러운 말로를 걸었듯이 현 《정권》도 남조선인민들의 저주를 받고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정의와 진리를 위한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공화국복부님의 전제 로동자들은 《유신》 독재부활을 반대하여 생존의 권리와 사회의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에 일심단결하여 투쟁에 나서시기를 함께 하자. 주제102(2013)년 12월 19일 평 양

남조선에서 반 《정부》 투쟁의 함성이 날로 높아지는 속에 파쇼적인 《보안법》조각 65년을 계기로 각계 사회단체들이 서울역광장에서 약백천명들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지었다. 대회에 참가한 단체생원들은 수십년간 민의와 민족애에 젖어온 수없는 피와땀을 지니는 《보안법》을 저주, 규탄하면서 퍼피당국에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인 《보안법》을 당장 철폐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날 《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집행위원회는 집권세력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심각한 정치적공작을 해

는 정보인민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보안법》을 내놓고 사회에 《총부》 광풍을 몰아오겠다고 단죄하였다.

진보련대 공동대표는 《보안법》은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폐지를 권고받은 반인민적약법, 반민주적약법, 반통일적약법이라고 하면서 정보원해체투쟁과 함께 《보안법》 철폐투쟁을 전개해나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남조선에서 이미 그 전상이 밝혀지고 판관자들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져 사람들을 경악케 한 인민혁명당사건, 민청학련사건, 동부베를린사건에 비롯한 수많은 사건들이다 《보안법》에 의해 조직적인 모략사건들이 남조선의 력대 파쇼독재자들이

하게 하는 사상 류태없는 파쇼악법이다. 그에 대해 잠시 들이 커보기로 하자. 《보안법》은 미국의 손때 묻은 주자인 리스만덕도가 일제개화기식민지시기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조작한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따 이른바 《국가안보법》의 구실을 이 1948년 12월 1일 제정하였다. 그것은 지난 수십년간 민의와 계약을 거둬들이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고 수많은 통일운동단체들과 애국적진인들을 다치게대로 탄압학

살하는 도구로 악명높아졌다. 《보안법》은 우리 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사회정치체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세력들과 단체들을 《리적단체》, 《제제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반국가단체구성자》와 《국가안보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파쇼독재정부를 극고추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한 모든 애국적활동을 범죄시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이미 그 전상이 밝혀지고 판관자들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져 사람들을 경악케 한 인민혁명당사건, 민청학련사건, 동부베를린사건에 비롯한 수많은 사건들이다 《보안법》에 의해 조직적인 모략사건들이 남조선의 력대 파쇼독재자들이

살하는 도구로 악명높아졌다. 《보안법》은 우리 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사회정치체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세력들과 단체들을 《리적단체》, 《제제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반국가단체구성자》와 《국가안보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파쇼독재정부를 극고추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한 모든 애국적활동을 범죄시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이미 그 전상이 밝혀지고 판관자들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져 사람들을 경악케 한 인민혁명당사건, 민청학련사건, 동부베를린사건에 비롯한 수많은 사건들이다 《보안법》에 의해 조직적인 모략사건들이 남조선의 력대 파쇼독재자들이

## 선거개입사건에 대한 집권자의 사과를 요구

남조선의 기독교청년회전국련합이 12일 퍼피권력기관들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사건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정보인민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이 불법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있다고 지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 이상 판관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언은 박근혜가 사건과 관련된 하여 사과할것을 요구하면서 【조선중앙통신】

## 사태를 격화시키는 불순한 목적

다. 그동안 이전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을 포함하여 민주당인 사들을 《대선》 불복세력으로 몰아내려 《세누리당》이 이번 에 직접적근거를 찾았다. 그 보고역세를 뒤거하고있었다. 《세누리당》은 장하원의원의 발언을 핑계로 이의 제기되어있던 정보원개혁특별위원장을 거부해나서는 한편 사건관련자들의 발언의 조직적 《대선》 불복을 연골하는 《세누리당》은 야당에 대해 《대선》 불복을 언급할 자질을 없애고 하면서 정쟁을 격화시키는 집권세력의 기도를 까발렸다. 민주당은 《세누리당》의 강경사태의 배후에 있는 청와대 홍보수석을 당장 때버릴것을 요구하였다. 민주당의 의원은 이의원은 김부성을 비롯한 《세누리당》 패거리들과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렇기 되어 《세누리당》 소속의 155명 전원들의 명의로 민주당의 장하원, 황승조 의원들의 의원직제명을 요구하는 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망동 2 서슴지 않았다.

여기에 청와대까지 개입하면서 가족이나 친형한 여야간의 대결은 더욱 격화되고있다. 얼마전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자는 지금까지 야당원들의 말과 폭언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는 리 뒤니 하면서 민주당원들의 발언에 대해 그 무슨 《언어살인》이니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니 하고 제쳐냈다. 나중에는 민주당원들을 《총부》 세력으로 몰아일 의도까지 드러내놓았다.

퍼피보수페당의 이런 불순한 움직임을 야당들과 각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은 즉시 2002년에 은 《대통령》 선거전에 로무현이 당선된 이후 생역기를 부여해 당선무효 소송과 로무현탄핵까지 추진했었던 《세누리당》은 야당에 대해 《대선》 불복을 언급할 자질을 없애고 하면서 정쟁을 격화시키는 집권세력의 기도를 까발렸다. 민주당은 《세누리당》의 강경사태의 배후에 있는 청와대 홍보수석을 당장 때버릴것을 요구하였다. 민주당의 의원은 이의원은 김부성을 비롯한 《세누리당》 패거리들과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렇기 되어 《세누리당》 소속의 155명 전원들의 명의로 민주당의 장하원, 황승조 의원들의 의원직제명을 요구하는 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망동 2 서슴지 않았다.

여기에 청와대까지 개입하면서 가족이나 친형한 여야간의 대결은 더욱 격화되고있다. 얼마전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자는 지금까지 야당원들의 말과 폭언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는 리 뒤니 하면서 민주당원들의 발언에 대해 그 무슨 《언어살인》이니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니 하고 제쳐냈다. 나중에는 민주당원들을 《총부》 세력으로 몰아일 의도까지 드러내놓았다.

## 《천안》 호침몰당시 어리가 람지되지 않은 사실 확인

남조선퍼피해군함선인 《천안》호가 침몰될 당시 어피공격이 없었다는것이 다시금 새로 밝혀졌다. 당시 《천안》호 유탄탄미수가 9일 서울중앙지방방위에서 진행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서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그는 함선의 침몰을 앞두고 유탄탄미수에 있었는데 침몰될 때까지 아무런 유탄탄도 들리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함선에 설치된 수중음향탐지기로는 잠수艇은 물론 어뢰도 발견된 해양경찰청 상경비행장정비 중의경비관

## 진보야당에 대한

15일 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퍼피세종중앙지방경찰청이 또다시 폭압수동을 일으키고있다. 검찰당국은 통합민주당 성원들이 운영한 6. 15소공미라는 《리적단체》를 적발했다고 떠들며 그 핵심성원들을 기소하

## 검질긴 탄압소

퍼피페당은 그들이 불법과 에 속의 청산, 새 조국건설을 목표로 단계를 결정한 후 북의 대량혁명리론을 추종하고 미군철수, 《보안법》 철폐투쟁을 벌였으며 상급 《리적단체》들과 관계를 가지고 반미의식을 고취하였다 등의 혐의를 씌워 이러한 후자를 감형하였다.

## 박근혜의 사퇴를 주장

한재미동포가 7일 현 퍼피정권의 사퇴를 주장하였다. 그는 남조선에서 정보원과 권력기관들이 개입한 불법선거가 있는 때로부터 1년이 되어 온다고 하면서 이 나날 퍼피대통령 박근혜는 자신사퇴하라.》는 항의의 목소리가 남조선 전지구를 휩쓸었다고 밝혔다.

## 남조선에서 사상

류태없는 부정선거로 《대통령》 갑두를 뒤집어선 현 퍼피집권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각계층인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있는 속에 여야사회의 정치적대립과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있다. 그리하여 《세누리당》이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띠고 민주당소속의 의원들의 최근 발언들을 몰고다니면서 사태를 복잡한 국면으로 끌고가고있기때문이다.

## 이렇게 되자 《세누리당》 패

거리들은 불에 멘 황소처럼 날뛰고있다. 이들은 《철없는 조선의원이 휘거러린 발언》이니, 《대학학생회장을준의 함람미달형년》이니 하고 그를 마구 헐뜯는다. 그러나 그 무슨 《모독》이니, 《민주주의의 파괴》니 뒤니 하고 재판에서 큰소리를 치면서 민주당이 사과하고 장하원의원에 대한 출당, 제명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역기를 부렸

## 이렇게 되자 《세누리당》 패

거리들은 불에 멘 황소처럼 날뛰고있다. 이들은 《철없는 조선의원이 휘거러린 발언》이니, 《대학학생회장을준의 함람미달형년》이니 하고 그를 마구 헐뜯는다. 그러나 그 무슨 《모독》이니, 《민주주의의 파괴》니 뒤니 하고 재판에서 큰소리를 치면서 민주당이 사과하고 장하원의원에 대한 출당, 제명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역기를 부렸

## 이렇게 되자 《세누리당》 패

거리들은 불에 멘 황소처럼 날뛰고있다. 이들은 《철없는 조선의원이 휘거러린 발언》이니, 《대학학생회장을준의 함람미달형년》이니 하고 그를 마구 헐뜯는다. 그러나 그 무슨 《모독》이니, 《민주주의의 파괴》니 뒤니 하고 재판에서 큰소리를 치면서 민주당이 사과하고 장하원의원에 대한 출당, 제명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역기를 부렸

## 시위자들을 탄압하는 파쇼경찰들



## 시위자들을 탄압하는 파쇼경찰들

퍼피보수페당이 미련을 품고 정치적술수에 매달림수록 민심의 분노는 더욱 고조되고 결국 그것은 현 퍼피집권자를 기소하

## 시위자들을 탄압하는 파쇼경찰들

퍼피보수페당이 미련을 품고 정치적술수에 매달림수록 민심의 분노는 더욱 고조되고 결국 그것은 현 퍼피집권자를 기소하

【조선중앙통신】

# 인류자주위업에 쌓으신 위대한 선군태양의 업적은 불멸할것이다

## 희세의 천출위인의 거룩한 한생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2주에 즈음하여 세계 진보적인류는 김정일동지께서 세계사회의 위업을 승리로 이끌어오신 영도의 자욱자욱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세상사람들이 칭송하듯이 현 세계에서 으뜸가는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사회주의는 인류의 넘버원이고 리상이다. 그러나 그것은 바란다고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지나는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인민대중은 장구한 기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과 사회주의애선자들의 비렬한 행위로 말미암아 좌절과 가슴아픈 대가를 겪기도 하였다. 특히 1980년대말~1990년대초 사회주의운동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입을 모아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며대면서 반사회주의선전에 광기를 부리었다. 일부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로 하여 세계사회의운동대에서는 혼란이 일어나고 세계사회의주의의 운명, 이론의 위기는 생사지로 놓이게 되었다.

이 엄숙한 역사적시기에 반사회주의의 광풍을 혁명의 열풍으로 몰아내시며 사회주의의 사상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체제의 길을 사수할 주신분은 바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시였다.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가장 훌륭한 사회주의의 사상을 제시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옮겨 조직동원하는 영도자의 영도에 의해서만 끊임없이 전진하여 승리하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천리하의 예지로 세계사회의운동앞에 나선 초비의 문제가 올바른 지도사상의 확립에 있다는것을 깊이 통찰하시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를 구현하고 전진시켜 나갈 구상을 펼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정력적인 사상 리론활동으로 1990년대 초엽에 이미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혁명적담담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태도는 허용될수 없다》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편속 발표하시어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붕괴의 원인과 역사적교훈을 총화하시고 사회주의의 진로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에도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북돋아주시기 위하여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을 밝히는 새로운 문헌집필에 큰 힘을 넣으시였다.

주제 83(1994)년 11월 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갖 심혈을 기울여 집필하신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가 세상에 발표되자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이 일어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리념이며 역사발전의 필연적단계라는데 대하여 밝히시고 과학적으로 론증하시였다. 그리고서 사회주의의 인민대중에 대한 주체적인 편견과 편견에 기초하고있는 우리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가장 우월하고 위력한 사회주의라는데 대하여서와 사람위주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방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을 《우리 시대의 위대한 <공산당선언>, <감각한 밤에 항쟁하는 배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그 기치밑에 세계사회의운동을 힘차게 벌어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당시 어느 한 나라의 신문주필은 로작을 받아안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면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맑스, 영

겔스, 베닌도 주지 못한 탁월한 사상가 리론을 내놓으시였다. 로작은 <공산당선언>을 훨씬 능가하는 현시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대강이다.》라고 격찬하였고 주체사상국제제언구 사무국장은 《로작이 발표됨으로써 혼들리던 사회주의리념에 억연 드는 것을 초석이 고여지게 되었으며 그늘졌던 사회주의의 영상에 밝은 빛이 비쳐지게 되었다.》라고 확인하였다.

정적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은 사회주의의 《종말》과 자본주의의 《승리》에 대해 떠들던 제국주의자들과 역사의 반동들에게는 사회주의의 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다. 하기에 로씨야의 한 정당지도자는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이 세차게 몰아치던 것처럼 엄혹한 시기에 그 누가 감히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재건시킬데 대한 새 한조각씩을 내놓았는가.》

오직 김정일동지께서만이 단신으로 세계사회의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해 수많은 사상리론을 내놓으시고 실천에 구현해 나가고계신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의 구원자, 수호자로서의 김정일동지의 최대의 업적이 있다.》라고 감동적인 심정을 터놓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회주의위업 수행의 불멸의 대강을 밝혀주시였을뿐 아니라 세계 혁명적당들과 인민들을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주제 81(1992)년 4월 평양에서 세계 5대륙의 130여개 나라에서 420여개의 당, 국가, 정부, 국회,

친선단체대표단과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0돐을 경축하는 세계적인 대정치축전이 성대히 진행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를 계기로 사회주의위업을 승리로 전진시켜나갈 새로운 공동의 투쟁강령을 마련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주제 81(1992)년 4월 20일 70개 진보적정당 대표들의 전적인 지지와 찬동밑에 역사적인 평양선언 《사회주의 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가 세상에 발표되게 되었다.

평양선언의 발표는 주체사상의 기치, 자주, 자주, 자주를 전진하는 세계사회의운동의 새 출발을 알리는 역사의 고고성이었으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혁명적당들과 인민들을 투쟁으로 힘차게 불러일으킨 위대한 사변이었다.

사회주의가 좌절되어 어떻게 투쟁할지 방향을 찾지 못하고있을 때에 발표된 평양선언은 세계 혁명적당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세계의 수많은 진보적정당들이 평양선언을 자기 당의 지도적지침으로 내세우고 사회주의운동을 벌였으며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하고 단결과 연대성의 뉴대를 강화해나갔다.

오늘 사회주의위업은 역사의 반동들의 온갖 도전을 파감히 물리치고 자기의 궤도를 따라 변함없이 전진하고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영도자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하기에 진보적인류는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쌓아올린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격찬하면서 그이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항쟁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세계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송의의 영원한 상징성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가슴속에 자주와 정의, 사회주의와 진리의 위대한 수호자로 깊이 새겨져있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반제 자주위업과 사회주의 위업수행

### 한 외 국 인 사 의 란 복

주제 72(1983)년 9월 당시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위원회 제 1부위원장이었던 해나로 베네수엘라 이스키에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군 35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그로 말하면 삶과 투쟁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배후정치활동가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대학시절에 맑스-레닌주의사상을 탐독하고 그것을 사상적무기로 삼고 투쟁의 길에 나섰다. 그러나 실패를 당도 못했던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흠뻑 풀어내지 못했다.

에 거대한 업적을 쌓으시였기때문이다. 하기에 진보적인민들은 어버이장군님께서 기록하신 불멸의 업적을 돌이켜보며 그이를 감회깊이 추억하고있다.

### 우리 장군님의 사상리론의 위대성, 영도의 위대성, 덕망의 위대성을 경조높이 칭송하였다.

이때에 그가 쓴 글의 한 대목을 소개한다.

《진보적인류가 21세기를 이끄실 영도자로 높이 모신 김정일동지, 사상과 영도, 덕망의 특출한 위대성으로 만민을 매혹시키는 그는 혁명적인 인민들에게 있어서 투쟁과 승리의 영원한 상징이시다.》

이것은 절세의 위인에 대한 그의 순결한 사상감정의 분출인 동시에 사대의 웨침이기도 하다.

### 위인을 우러러 러친 심장의 웨침

주제 88(1999)년 10월 어느 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현지지도의 바쁘신 가운데서도 무려 다섯시간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내빈제로 방문한 전연 맹볼레비치공산당 지도자를 만나주시였다.

그에게서 로씨야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당들은 계급적이익을 확고히 견지하는것과 함께 광범한 대중을 당의 투쟁에 비쳐시키는데 모를 박고 사상사업, 정치사업을 강화해나

가는것이 필요하다. 균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하는 당은 자기의 목적을 성파적으로 실현할수 없다. 미제가 지구상에서 사회주의를 없애보려고 발광하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당들이 반제, 반미의 기치를 들지 않고서는 자기의 목적을 실현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리치이다. ...

세상천하를 환하게 밝혀주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눈부신 섬광처럼, 오랜 실명끝에 바라보는 해빛처럼 당의 심장속에 비쳐들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에서 본사기자

# 다함없는 흠모, 열렬한 칭송 조선식사회주의는 승승장구할것이다

《조선이 자주의 나라, 주체의 나라로 불리며 끊임없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는것은 사상리론의 대가이신 김정일영도자께서 계시기때문이다.》

김정일영도자께서는 김일성주체사상에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발전봉부하시였다. 또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진보적인민들에게 사회주의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시고 제국주의자들에게 심한 타격을 가하시였다. 그의 고전적로작들은 인류의 귀중한 유산이며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위력한 사상 리론적주거이다.

김정일영도자의 위대한 사상과 거대한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질것이다. 《민주적이고 진보적이며 광범한 위대한 업적을 유산으로 남기시였다.》(영공공산당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위원장)

《1942년 2월 16일 조선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행렬차에 계시면서 사회주의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담보하는 거대한 업적을 유산으로 남기시였다.》(영공공산당, 선군사상을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항도적력량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불패의 사회주의국가로,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장군으로 더욱 굳건히 다지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기록하신 불멸의 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시는 절세의 위인이었다.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

《조선은 자주의 길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고이며 선군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갈 것이다.》

세계는 조선식사회주의의 불패의 생명력에 경탄을 금치 못하며 사회주의를 고수해나가는 조선의 영의를 표창하였다.

인류의 속망이며 리상인 사회주의의 기치를 변함없이 들고 나아가는 조선인민이 국제사회의 동정과 영의를 받는것은 응당이다.

조선인민은 김정일영도자를 따라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팔자씩 걸었다.》(체철훈 《해물리노 뽀블라르》)

오늘 세계 진보적인류는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고립압박동속에서도 사상이나 리념에서 그 어떤 탈선도 없이 사회주의의 길로 꾸준히 나아가고있는 우리 나라에 대한 끝없는 동경과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이것은 그대 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칭송과 흠모임으로 분출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항쟁을 버치오신 불면불욕의 로고와 헌신이 그들의 심장을 울려주셨던것이다.

정적 위대한 장군님의 한줄기 빛이 나의 영광, 나의 의지를 불타게 해주었으며 인간과 평화를 가장 귀중한 거머잡았다. 사회주의의 빛이 승리할것이라는 나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해주었다.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신념은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다. 그것은 최고의 사상인 사회주의사상은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불타버리지 않기때문이다.

영원한 사상인 사회주의의 사상을 팔자씩 받고 따르는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으리라. 이것은 그의 심장의 웨침만이 아니다.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해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경모의 정이 수많은 외국 의 벗들의 가슴에 차고넘치고있다.

세계정화사자를 위한 장군 《선군정령》 조선식사회주의가

단 이러한 예외고과도 있다.

그는 조선방문의 소감에 대해 이렇게 썼다.

조선을 방문하여 목격한 모든 것은 나에게 영원히 지울수 없는 깊은 감동을 주었다.

... 나는 주체의 선군태양인 김정일동지께 조선인민의 오랜 흠모임으로 분출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항쟁을 버치오신 불면불욕의 로고와 헌신이 그들의 심장을 울려주셨던것이다.

정적 위대한 장군님의 한줄기 빛이 나의 영광, 나의 의지를 불타게 해주었으며 인간과 평화를 가장 귀중한 거머잡았다. 사회주의의 빛이 승리할것이라는 나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해주었다.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신념은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다. 그것은 최고의 사상인 사회주의사상은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불타버리지 않기때문이다.

영원한 사상인 사회주의의 사상을 팔자씩 받고 따르는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으리라. 이것은 그의 심장의 웨침만이 아니다.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해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경모의 정이 수많은 외국 의 벗들의 가슴에 차고넘치고있다.

세계정화사자를 위한 장군 《선군정령》 조선식사회주의가

만방에 빛을 뿌릴수 있게 하여 주신 김정일동지는 사상과 영도의 대가이시며 으뜸가는 정치가, 위대한 선군령주자이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메히코로동당 전국지도자 알베르 피아라 구에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정치를 펼치시어 조선식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역사는 강력한 국방력을 가져야 평화를 지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조선인민이 온갖 도전을 물리쳐 버백을 떨치고있는 비결의 하나가 선군정치를 받고있는데 있다. 선군은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다. 조선은 선군의 위력으로 자기의 위업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진보적인류는 세계혁명의 탁월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잃고 보내는 지난 2년간 선군정치의 불패의 위력에 대해 더욱 가슴깊이 절감하고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위업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였기에 조선은 또 한분의 위대한 정치가,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영도따라 자기가

선택한 길,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다고 격찬하고있다.

인도네시아 세나르 안폴외 사 사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통일,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항쟁을 버치오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뿐 아니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그이의 선군정치를 그대로 계승해나가는 김정일영도자의 혁명적영도가 있기에 조선에서는 사회주의기치가 펄럭 휘날리면서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는 승승장구할것이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헝가리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부장은 조선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조선인민의 강인한 의지에 대하여 잘 알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기치높이 확신있게 나아가고있다고 확인하였다.

수리아 알 바사신신문사대표 단 단장은 우리 나라를 방문한 아르볼 라피르 오르만은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토론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김정일동지의 영도따라 자기가

얼마전 일본방위 상 오노데라가 기자회견이라는것을 벌려놓고 지금까지 오기나와에서 실시해온 주일미군투기들의 성격 및 목적은 일본의 일부 본토로 이전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이와 함께 오기나와 후방미공군기지에 배치되어있는 수직리착륙수송기(KMV-22 오스프레)를 리용한 임피공통훈련을 다음해 2-3월에 나가다현과 군마현에서 실시한다는것을 공식 발표하였다.

그리고는 앞으로 주일미군기 지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 있는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제법 큰소리를 쳤다.

기자회견후 오노데라는 마치도 큰일이 해제될것처럼 으쓱해서 돌아다니고있다. 주일미군의 끊임없는 전쟁연습소동으로 항시적인 위협을 받고있는 오기나와주민들의 고통을 어느 정도나마 덜어주게 되었다는것이다. 요컨대 일본국민들을 위해 무엇인가 이바지하였다는것이다.

하다면 오노데라의 말대로 주일미군의 군사연습소동을 본토에 이전하는것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것인가. 그에 대해 까밝혀볼 필요가 있다.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지금도

대미굴종에 환장한자들의 추태

오기나와의 주민들이 미군기지 때문에 위협을 받는것은 사실이며 여기에서 미군이 나간다면 이곳 주민들이 항시적인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것도 주자의 사실이다.

주일미군은 오기나와주민들의 저주와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그만큼 이곳 주민들이 미군의 군사연습과 범죄행위로 막대한 인적 및 물질적피해를 입고있다.

력사적으로 볼 때 주일미군 범죄는 미군이 일본방에 발을 들여놓은 첫 순간부터 발생하였다. 미군은 강점국으로서의 거만한 자세와 극도의 오만성, 민족배타주의에 사로잡혀 일본에서 각종 범죄를 거러걸음이 감행하였다. 이것은 일본 국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었다.

주일미군의 70%이상이 집중되어있는 오기나와에서는 미군병사들에 의한 일본인여성강간혹행사건과 강도, 살인, 절도사건이 번갈아가 일어났다고 한다. 그에 대해 끝자름이 없다. 미군주거지 흘러나오는 각종 폐기물에 의한 오염, 미군전투기들의 저공비행으로 인한 소음 등에 의하여

현지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다.

주일미군의 빈번한 범죄행위와 전쟁연습소동은 일본국민들의 격분을 자아냈다. 오기나와주민들은 미군기지를 즉각하거나 철수시킬것을 요구하여나섰다. 그런데 미국은 분노한 일본인 민심에 뜨끔해 노는 것이 전부였다.

그야말로 현지주민들을 알기를 우습게 하고 일러던지자라는것이였다. 이것이 현지주민들은 물론 일본사회계와 언론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한결같이 미국때문에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머러러침을 당하고 있다 하면서 미국에 할 소 리도 못하는 일본당국을 공격하여나섰다.

일이 이쯤 번져지자 바빠난 것은 일본당국자들이였다. 그들은 사태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이렇다할 보폭한 대책이 나서지 않았다. 이제저때 속속 세이면서 해를 보내다가 이번 찾아낸것이 바로 오기나와에서 진행되던 주일미군의 군사연습을 일본본토로 이전하는것이였다.

일본당국자들의 행동을 보면 정말 코막고 답답한노릇이 아

닐수 없다. 원래 일이 제대로 되자면 일본당국자들로서는 미군철수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의 낯색을 살피며 그 무슨 연습장이동이나 뛰니 하는대꾸만 들고나왔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되겠는 가 하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원래 태극기를 그렇게 태극은 주일미군이 오기나와의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일본본토에서 혼란한다고 달려지겠는가. 침략과 살인, 강도의 기치를 타고난것이 바로 미군이다. 승냥이는 절대 결코 양으로 변할수 없다.

결국 이제는 오기나와의 주민들이 아니라 전일본국민들이 주일미군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만큼 일본국민들의 반정부감정은 더 커지게 되었다. 일본당국자들은 이리할 피하려다가 범을 만나는 격이 되었다.

하기는 미국을 해비처럼 섬기는 일본당국자들로서는 어렵수 있는 일이다. 자국민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대미추종과 굴종에 정치적정권을 걸고있는 일본당국자들의 본성이 달라지지 않는 한 일본국민들의 처지는 달라지는 필수이다.

프랑스조선친선협회가 10일 인터넷홈페이지에 《미국의 일간지인리프》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대조선정책을 아우르는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의 대조선정책대시정책은 일간지들이 매우 무시워 그것을 팔려고 물에 뛰어들어 더 큰 큰 돈을 보는것과 유사하다.

미국은 1953년 이후 조선반

체 프 랑 스 단

미국의 대조선정책대시정책을 아우르는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의 대조선정책대시정책은 일간지들이 매우 무시워 그것을 팔려고 물에 뛰어들어 더 큰 큰 돈을 보는것과 유사하다.

미국은 1953년 이후 조선반



일본에서 대미비판 대대적인 시위